

성범죄자에 대한 여대생들의 인식*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상적인 성범죄 사례에 대한 정보나 사진을 쉽게 제공받게 되어 성범죄자 대한 인식은 실제와 비교하여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내용을 파악하고 공식 범죄 통계와 비교하여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식과 실제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서울 및 충청권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이미지 및 일반적인 인식, 성범죄자에 대한 특성, 성범죄자의 성향, 그리고 성범죄자의 유년시절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성범죄 및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내용은 대중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식 범죄 통계와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은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범죄자, 고정관념, 범죄통계, 대중매체, 형사사법체계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1-1203-0040)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140-742)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Tel : 02-2077-7684, E-mail : mkim76@sm.ac.kr

최근 대중매체로부터 집중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범죄 유형은 아동 대상 성범죄 및 강간사건과 같은 성범죄이다. 특히 아동 관련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1997년 대비 2007년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지태, 2009). 또한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매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도가니’와 같은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도입과 같이 관련법 개정이나 형사사법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범죄에 대한 정보는 대중매체를 통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데 특히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행위와 일탈 행위의 구분, 규범 안정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직무 감시와 같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홍지아, 2009). 반대로 형사사법절차나 범죄에 대해 매우 왜곡된 모습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범죄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침해, 모방범죄 가능성 증가, 형사절차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제공하여 부정적인 역할도 한다(고비환, 2012; Hans & Dec, 1991).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얻게 되는 범죄에 대한 정보는 범죄자의 이름, 성별, 성장배경, 가족관계, 직업, 소득수준, 취미 및 여가 활동과 같은 인적사항들이 대부분이다(박보라, 2007). 언론 보도를 통해 제공되는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경험이나 믿음을 토대로 선택적으로 처리되어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고정관념적인 내용을 유지하는 도구

로 사용된다(김민지, 2012). 결국 사람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범죄유형에 따른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범죄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수사나 재판과 같은 형사사법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르러 일반적인 범죄자나 성범죄자와 같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실제 범죄 통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앞으로 범죄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의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고정관념적인 인식 내용이 형사사법체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실제 성범죄자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범죄 공식 통계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영역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의 영향

범죄보도는 사건의 발생부터 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수사 내용과 과정, 판결, 피의자나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만평, 사설, 대담, 평론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이승선, 김연식, 2009). 박보라(2007)는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다섯 건의 강력범죄에 대한 신문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보도내용의 50% 이상이 용의자나 범죄자의 이름, 성별, 성장배경, 가족관계, 직업, 소득수준, 거주지역, 그리고 여가활동 및 취미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의 비정상적인 면을 과도하게 강조하는데 소아기호증, 싸이코패스, 정신이상자 등의 병리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양정혜, 2009).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죄피의자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 등의 공익성을 내세워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강호순과 김길태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범죄자의 신원을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최근에 시행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의거하여 몇 가지 요건¹⁾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이에 따라 범죄피의자의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는데 보도의 내용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범죄 관련 심층 보도가 빈번해졌다는 점, 인격침해를 동반한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

1) 그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 (2)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이다.

는 점,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논의되고 있다(이승선, 김연식, 2009; 홍지아, 2009).

미국의 경우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흑인 범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미국사회에서 지속되어온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결합되어 흑인은 백인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더 두려워한다(Dixon & Maddox, 2005). 또한 일반적인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보다 범죄를 많이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소수 인종에 대한 범죄 관련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ergeer, Lubbers, & Scheepers, 2000). 한국에서도 범죄보도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수록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인근지역이 범죄보도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증가하며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범죄가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김연수, 2006; 박순진, 2012). 예를 들면, 성범죄와 관련된 TV 뉴스를 많이 접하는 여성일수록 자신에게도 성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손현정, 이종혁, 2012). 실제로 범죄발생에 대한 공식통계나 범죄피해조사 결과 범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높다고 지각할수록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아동성폭행이나 폭력적인 강간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파국성이 큰 사건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추론하는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존재와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성범죄를 더 두려워하고 남

성이 느끼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는 그 내용이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정승민, 2011).

고비환(2012)은 미디어를 통해 범죄가 왜곡되게 전달되어 범죄자들을 악마화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증가시켜 중형주의를 지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중형주의를 지지하는 법들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언론의 범죄보도는 범죄현상을 반영하기보다 재구성하여 보도하기 때문에 매우 폭력적인 범죄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인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법안들이 과감하게 도입되게 하는 기반이 된다(강동욱, 2009; 김태명, 2011). 실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와 같이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법들이 새로 제정되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이수정, 김경옥, 2005). 이처럼 특정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인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범죄가 증가한다고 인식하게 만들어 관련 정책이나 법안들이 도입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및 고정관념

미국과 같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경우 인간의 외모가 사회적 판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얼굴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한 연구 결과 사람들은 동안(baby face)과 성숙한 얼굴(mature face)을 비교적 쉽게 구분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크고 둥근 눈, 높은 눈썹, 작은 턱은 동안과 관련 있으며 동안인 경우 성숙한 얼굴보다 더 따뜻하고 너그럽고, 상냥하고 친절하며 정직한 반면에 책임감이 떨어지고 순진하며 의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 Zebrowitz-McAthur, 1985; Zebrowitz & Collins, 1997). 또한 얼굴의 생김새만으로도 특정 범죄와 연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때로는 이러한 판단이 정확할 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연쇄살인자, 성폭행범, 무장 강도, 성직자, 의사, 기술자로 구분하여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과제에서 판단 정확도와 평정자간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armey, 1993). 또한 Valla, Ceci, 와 Williams (2011)는 실험을 통해 얼굴 사진을 사용하여 범죄 관련성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실제 강간범, 폭행범, 방화범, 마약범의 얼굴로 구성된 16개의 사진과 비범죄자로 구성된 16개의 얼굴 사진을 보고 각각의 인물에 대해 범죄와 관련된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얼굴 정보만으로도 강간이나 폭행을 저지른 폭력적인 범죄자, 방화나 마약거래와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자, 비범죄자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강간범을 구별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여 판단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때에 따라서는 범죄자와 비범죄자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경우도 있지만 고정 관념적 판단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곡되기 쉬워진다. 결국 인간은 외모를 통해 고정관념을 형성하기도 하고 형성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외모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범죄자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도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강간범이나 아동성폭행범과 같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등으로 연구 내용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김민지(2012)에 의하면 범죄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강호순, 김길태와 같은 특정 범죄자의 이름,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특정 범죄의 유형, 큰 체격 및 검은색 모자나 마스크와 같은 범죄자의 외모나 복장을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후반의 남성, 고등학교 졸업, 직업이 없거나 시간제로 일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문제, 음주 및 약물남용문제가 있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30대 남성, 일용노동자, 동종 전과자, 범행 장소는 건물 내 엘리베이터나 계단, 옥상 등을 가장 많이 떠올렸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안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박지선, 이연호, 2011). 강간 범죄자의 경우에는 26-30세 남성, 무직, 미혼, 전과 3범, 약물이나 마약사용,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박지선, 박인선, 2011). 그러나 아동 성범죄자와 강간범에 대한 인식의 내용은 실제 범죄통계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이나 경찰관들도 성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범죄자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의 내용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 강력범죄, 범죄자의 개인 정보, 언론에 공개된 특정 범죄자의 사진을 통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기술의 발달로 범죄자의 CCTV 화면이나 용의자의 몽타주 등이 언론에 공개되는 사례

가 많아지고 있으며 사이코패스와 같은 전문적인 용어들도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해졌다. 대중매체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개인정보, 사진, 범행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범죄에 대한 언론의 보도 증가와 민감성이 증가하고 선정적이고 비정상적인 범죄 사례들이 보도됨에 따라 일반적인 범죄자 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인식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범죄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 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형사사법체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형사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일반인들은 범죄자들은 유색인종, 남성이며 낮은 경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잔인하고 난폭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특정한 외모나 복장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자와 관련하여 인종이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들이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Blair, Judd, & Chapleau, 2004; Dumas & Taste, 2006; Macrae & Shepherd, 1989; Porter, Brinke, & Gustaw, 2010; Valla, Ceci, & Williams, 2011). 예를 들면, 뉴스에 제공된 범죄 용의자에 대한 기억이 잘못된 기억을 만들

어내기도 하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할 수 있으며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유죄 판결 비율이나 형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찬, 김혜숙, 2010; Mazzella & Feingold, 1994; Oliver & Fonash, 2002; Sweeney & Haney, 1992). 즉, 범죄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관,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목격자가 용의자를 지목하는 경우, 일반인이 형사 재판의 배심원으로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한 편향된 인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DNA 분석을 통해 무죄를 입증 받은 오판 사례들은 2013년 3월 현재 300건 이상이 된다(Innocence Project, n.d.). 결국 특정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내용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요인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나 이미지가 범죄 자체가 어떻게 해석되고 기억에 미치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추론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의 오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중형주의를 지지하게 되며 형사사법 내에서의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범죄자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외국의 연구들은 대부분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얼굴에 나타나는 인종적 특징이나 외형, 또는 개인적인 특성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범죄자에 대한 인식을 몇 개의 차원에서 비교적 간단하게만 측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내용을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파악해보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고정관념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2012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성범죄 피해자의 94.0%가 여성이고 3.74%가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피해자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7,386건), 그 다음이 20세 이하(4,979건)와 40세 이하(2,4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성범죄 피해가 가장 많은 30대 이하의 젊은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자 한다. 우선 성범죄자에 대해 떠오르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언론을 통해 제공되는 성범죄에 대해 얻은 정보의 내용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들의 사진을 통해 얼굴의 특징, 복장,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들을 가장 쉽게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언론 보도가 실제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명한 사건의 경우 성범죄자의 이름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실제 성범죄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기억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성범죄자의 특성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의 경우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짧은 머리, 검은색 모자 착용, 수갑을 차고 있고 붉은 색 또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였다. 또한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의 경우 검은색 점퍼 안에 회색 셔츠를 입었고, 두 눈을 가릴 만큼의 비교적 긴 머리, 검은색 트레이

닝 바지를 입고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들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나주 초등학교를 납치하여 성폭행한 고종석의 경우 날카로운 눈매에 검은색 모자, 짧은 머리, 검은색 바지를 입었으며 수갑을 차고 있었다. 대부분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은 모두 아동 대상 성폭행 범들이었지만 대부분 검은색 옷을 착용하고 검은색 모자와 수갑을 착용한 모습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내용과 2012년 대검찰청에서 발행된 범죄분석에 제시된 실제 범죄 통계와의 차이를 확인하여 성범죄자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성범죄 사건들은 대부분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사례들이며 그 내용도 범죄자들의 개인적인 특징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젊은 여성들은 성범죄자들에 대해 실제의 모습보다 왜곡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방법

참가자

설문에 참여한 여대생은 서울 및 충청권 대학 재학생이었으며 140명이 참여하였으나 불성실 응답자 및 중복 로그인 사례들을 제외하고 총 10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나이는 만 19세세부터 32세 사이였으며 평균 연령은 21.38세(SD=1.57)세였다. 응답자들 중에서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4%였고 피해경험은 평균 1.10번(SD=1.04)이었다.

절차

서울과 충청권 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참가자를 모집하여 다양한 전공의 여대생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설문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면 온라인 설문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링크와 함께 설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제공된 자동 응답 메일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지정된 기간 내에 설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링크에 접속하게 되면 설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주의 사항이 제공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설문참여 동의서가 제시되었다. 설문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실제 설문 문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설문에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으며 설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설문 목적에 대한 설명(debriefing)이 제공되었다.

설문내용

성범죄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는 총 네 영역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성범죄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성범죄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처음 생각나는 10개의 단어를 순서대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아기호증 성범죄자, 강간범, 성희롱, 데이트 강간범들의 외모적인 특징 다섯 가지를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순서대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성범죄의 발생 비율을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하기 위해서 폭행, 마약범죄, 금융범죄, 납치, 살인, 재산범죄(절도를 제외한 기물파손이나 재물손패 등), 절도, 성범죄 중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의 순위를 정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범죄나 성범죄자에 대한 뉴스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묘사가 얼마나 사실적이라고 생각하는지(1점: 전혀 사실적이지 않음-7점: 매우 사실적임), 10개의 장소에서 성범죄를 경험할 가능성(1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음-7점: 매우 그럴 것 같음) 등을 묻는 질문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영역은 성범죄자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범죄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0-100%), 성범죄에 관련되는 평균 연령,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 범죄자의 평균 신장 및 체중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였다. 또한 성범죄자의 최종학력, 고용상태에 대한 의견과 함께 정신건강 문제, 음주 문제, 약물남용 문제가 있을 가능성(1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음-7점: 매우 그럴 것 같음)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성범죄자들의 성향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범죄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변장했을 가능성, 약물이나 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정도,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성격 또는 환경의 영향력 정도(1: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음-7: 매우 그럴 것 같음)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범죄자의 지능과 언변능력 및 매력의 정도(1: 매우 낮음-7: 매우 높음), 종교적 성향(1: 전혀 종교적이지 않음-7: 매우 종교적임), 군복무와 결혼을 했을 가능성, 자녀와 애완동물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네 번째 부분은 범죄자의 유년 시절과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범죄자가 어린 시절에 행동적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을 가

능성, 외톨이나 인기인이었을 가능성, 어린 시절 여러 종류의 양육환경에서 성장했을 가능성, 유년 시절 다양한 행동 및 행위들에 참여했을 가능성(1: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음-7: 매우 그럴 것 같음)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설문문의 마지막 부분은 설문참여자

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결 과

성범죄자에 대한 이미지

성범죄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처음 생각나는 열 개의 특성을 순서대로 서술한 답변 내용을 비슷한 답변들로 묶어 범주화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범죄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처음 떠오르는 단어들의 범주는 성범죄자의 특성(26.9%), 특정 범죄 및 범죄자(24.1%), 외형적 특성(14.8%),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관련 감정(13.0%),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9.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어의 경우는 성범죄자의 특성(22.2%), 특정 범죄 및 범죄자(18.5%),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13.0%),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관련감정(11.1%), 피해자에 대한 내용(9.3%) 등이었다. 세 번째 단어의 경우는 성범죄자의 특성(27.8%), 특정범죄 및 범죄자(14.8%) 및 형사정책 기관 및 형벌(14.8%),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12.0%), 그리고 외형적 특성(11.1%)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여대생들은 성범죄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변태성욕자, 정신이상자, 심리적 장애, 사회부적응자, 히키코모리, 사이코패스와 같이 성범죄자의 비정상적인 특성을

표 1. 성범죄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처음 생각나는 내용

범주	내용
성범죄자의 특성 (26.9%)	변태, 변태성욕자, 성불구자, 정신이상자, 아는 사람, 잘못된 성관념, 심리적 장애, 사회부적응자, 바바리맨, 싸이코패스,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람, 주변사람, 음란동영상을 자주 본다, 이기적, 잔인, 동네 알던 이웃, 성도착증 환자, 히키코모리, 로리타 증후군, 열등감, 여성혐오, 재범 위험성, 포르노 노출, 미혼, 성적욕구
특정범죄 및 범죄자 (24.1%)	성폭행, 성폭력, 아동성범죄(자), 강간(범), 범죄자, 살인마, 김길태, 유영철, 강호순, 성희롱, 나영이 사건, 소아성애자, 납치, 스토킹
외형적 특성 (14.8%)	남자, 아저씨, 모자, 마스크, 키가 큰, 평범한 40대 남성, 덩치가 큰, 멀쩡하게 생김, 작은 키, 흉기를 들고 위협적인 모습, 대머리, 야구 모자, 외국인 노동자, 불안해보이고 초취해 보임, 양복, 우울하고 침울한 얼굴, 기분 나쁜 인상, 수염, 얼굴을 가린 남자, 주위의 눈치를 살핌, 긴장한 청년, 강압적 목소리, 수갑을 차고 있음, 술에 취한, 안경, 할아버지, 검은 피부, 마른체형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관련 감정 (13.0%)	무서움, 어둡다, 걱정됨, 분노, 더러움,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약한 처벌에 대한 분노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 (9.3%)	야만적, 늑대, 짐착이 강함, 직장 없음, 폭력적, 힘이 썸, 더러움, 죽일 놈, 짐승, 괴물, 쓰레기, 나쁜 놈, 루저, 동물이나 다름없는 사람, 미친놈, 인면수심, 파렴치한
성범죄자의 환경 (2.8%)	학대, 우울한 가정환경, 왕따, 가난, 열등감, 사회적 고립,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대와 방치 당했을 것, 불우한 어린 시절, 가난하고 일자리 없음, 사회적 소외를 받음
형사정책기관 및 형벌 (2.8%)	전자발찌, 처벌, 형량, 화학적 거세, 112, 감옥, 무기징역, 보상, 약한 처벌, 솜방망이 처벌, 성범죄자 알람서비스, 신상공개, 사형, 물리적 거세
피해자 관련 (2.8%)	아동, 트라우마, 어린이, 피해자, 불쌍한 여자, 피해자들의 부모, 장애인, 초등학교,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 여자 아이
기타 (3.7%)	어두운 거리, 지하철, 밤, 어두운, 으스스한 곳, 도주, 빨간색, 칼, 대중교통, Law and Order: SVU, 성범죄를 다룬 영화, 미디어, 성범죄를 다룬 영화, 뉴스, 과잉보도, 도가니, 성행위, 성기

우선적으로 떠올리며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 강간범, 소아성애자와 같은 특정 범죄유형이나 유영철, 강호순과 같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범죄자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패턴은 첫 다섯 단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범주의 순위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여대생들은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성범죄 관

표 2. 성범죄 하위 유형에 따른 외모적인 특성의 내용

범죄 유형	특성	내용
소아기호증	전체적 느낌	성인 여성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분위기, 집착이 강함, 변태 같음, 열등감이 심함, 아이들에게 친절, 친근한 외모
	체형	왜소함, 마른체형, 체구가 작음, 뚱뚱함, 짧은 다리, 호리호리함
	얼굴	동안, 유하게 생겼음, 긴 얼굴, 웃는 얼굴, 붉은 얼굴, 하얀 얼굴, 다양한 표정, 후덕한 얼굴, 착하게 생김
	눈/눈썹	찢어진 눈, 작은 눈, 매서운 눈, 큰 눈, 다부진 눈매, 날카로운 눈매, 흐린 눈빛
강간범	전체적 느낌	변태 같음, 지저분함, 우울한 분위기, 낮은 자신감, 폭력적, 자기중심적, 평범함, 지배적인 성격, 어두운 이미지, 주위를 수시로 살핌, 위협적, 차가운 이미지, 난폭함
	체형	건장한 체격, 근육질, 마름, 넓은 어깨, 다부진 몸
	얼굴	기분 나쁜 인상, 강한 인상, 긴 얼굴, 각진 얼굴, 사각 턱, 큰 얼굴, 무표정, 범죄형 얼굴, 험악한 인상
	눈/눈썹	큰 눈, 매서운 눈빛, 강한 눈빛, 작은 눈, 날카로운 눈, 짙은 눈썹
성희롱범	전체적 느낌	지적인 이미지, 직장상사, 아저씨, 소심함, 보통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 능글맞음, 가부장적, 느끼함, 무능력함, 아버지함,
	체형	뚱뚱한 체격, 배나운 아저씨, 근육질, 작은 체구, 비만, 복부비만, 보통체격, 작은 체격
	얼굴	큰 얼굴, 음흉한 표정, 평범함, 느끼한 얼굴, 둥그런 얼굴, 못생김, 넓적한 얼굴
	눈/눈썹	작고 찢어진 눈, 진한 눈썹, 짙은 쌍꺼풀, 불쾌한 시선, 날카로운 눈빛, 게슴츠레한 눈, 쾅한 눈
데이트 강간범	전체적 느낌	깔끔함, 고집 센, 욕하는 성질, 뻔뻔질, 평범함, 매력적, 쾌남, 켄틀함, 근육질, 넓은 어깨, 자상한 말투, 강압적인 태도, 돈 많음, 호남형
	체형	근육질, 건장함, 다부진 체격, 우람함, 넓은 어깨, 적당한 체구
	얼굴	잘생김, 좋은 인상, 준수한 외모, 자신감 있는 표정, 달걀형 얼굴, 강한 인상, 남자답게 생김
	눈/눈썹	작은 눈, 찢어진 눈, 강렬한 눈빛, 짙은 눈썹, 또렷한 눈매

런 영화나 드라마도 떠올리고 있었으며 성범죄와 관련된 언론 기사들과 함께 성범죄자의 외형적 특성과 자라온 환경 등을 떠올리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대생들이 소아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 강간범, 성희롱범, 데이트 강간범등과 같이 특

정 성범죄자들의 외모적인 특성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기술한 내용을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성범죄자 하위유형과는 상관없이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외모적 특성은 순서대로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 체형, 얼굴, 그리고 눈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성범죄 하위유형과는 상관없이 눈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날카롭고 매서우며 작고 찢어진 눈을 연상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성범죄자 유형들에 대한 외모적인 특성의 내용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의 이미지는 체구가 작고 왜소하며 흰 피부에 동안인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아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의 경우 가장 처음 떠오르는 외모적인 특성으로 체형(27.8%), 전체적인 느낌(20.4%), 얼굴형/얼굴전체(14.8%) 등의 순서였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느낌(25.0%), 체형(19.4%), 얼굴형/얼굴전체(13.9%) 등이었고 세 번째는 전체적 느낌 및 얼굴형/얼굴전체(각각 18.5%), 눈/눈썹(13.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소아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의 경우 전체적인 느낌이나 체형, 얼굴의 생김새 등을 가장 빈번하게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범들의 경우에는 근육질의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으며 강하고 매서운 눈빛에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을 떠올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간범의 경우 가장 처음 떠올리는 외모적인 특성은 체형(25.0%), 전체적 느낌(14.8%), 키(13.0%) 등의 순서였고 두 번째로는 체형(24.1%), 전체적인 느낌(17.6%), 눈/눈썹(16.7%), 복장/장신구(8.3%) 등이었고 세 번째로는 체형(15.7%), 키 및 눈/눈썹(각각 12.0%), 얼굴형/얼굴전체(10.2%) 등의 순서였다. 강간범들의 경우 체형이나 전체적인 느낌, 키, 눈매 등

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범의 경우에는 뚱뚱한 체격에 거부감적이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장상사와 같은 중년의 남성을 떠올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희롱범의 외모적인 특성으로 가장 처음 떠오르는 내용은 전체적인 느낌(17.6%), 체형(13.9%), 나이(13.0%) 등이었고 두 번째는 체형(24.1%), 얼굴형/얼굴전체(16.7%), 헤어스타일/색/길이(10.2%) 등이었고 세 번째는 체형(14.8%), 눈/눈썹(13.9%), 얼굴형/얼굴전체 및 전체적인 느낌(각각 13.0%) 등으로 나타났다. 성희롱범의 경우 전체적인 느낌, 체형, 얼굴형 및 눈매 등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데이트 강간범은 잘생기고 매력적인 호남형의 젊은 남성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모적인 특성으로 가장 처음 떠오르는 내용은 전체적인 느낌(23.1%), 키 및 얼굴형/얼굴전체(각각 15.7%), 체형(11.1%) 등이었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느낌 및 체형(각각 20.4%), 눈/눈썹 및 키(각각 12.0%) 등이었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느낌(23.1%), 얼굴형/얼굴전체(13.0%), 키 및 체형(10.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데이트 강간범은 전체적인 느낌, 키, 체형 등을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범죄자 하위유형별로 떠오르는 외형적 특징의 유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특징 유형의 내용들은 모두 달랐다.

성범죄가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얼마나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폭행, 마약범죄, 금융범죄, 남치, 살인, 재산범죄(절도가 아닌 기물파손, 재물손괴 등), 절도, 성범죄에 대한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정한 순위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결과 가장 흔한 범죄의 순서는 폭행(M=1.94, SD=1.08), 절도

(M=2.48, SD=1.40), 재산범죄(M=3.77, SD=2.18), 성범죄(M=3.86, SD=1.47), 금융범죄(M=4.97, SD=1.72), 납치(M=5.95, SD=1.48), 살인(M=6.28, SD=1.288), 마약범죄(M=6.63, SD=1.29)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에 발행된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1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순서대로 절도를 제외한 재산범죄²⁾(323,799건), 절도(281,561건), 폭행(123,304건), 성범죄³⁾(22,034건), 금융범죄⁴⁾(17,501건), 마약(5,524건), 살인(1,221건), 납치(약취와 유인, 272건)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의 경우 폭행이나 납치의 경우는 실제보다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재산범죄와 마약범죄는 실제보다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한 장소에서 범죄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들로 순서대로 주차장(M=5.69, SD=1.01), 술집/나이트클럽(M=5.57, SD=1.23), 공원(M=5.36, SD=1.18), 온라인(M=5.23, SD=1.61), 집(M=4.86, SD=1.55), 길(M=4.79, SD=1.46), 학교(M=4.49, SD=1.36), 일터(M=4.44, SD=1.37), 상점 안 또는 건물과 같은 사업장(M=4.36, SD=1.46), 휴양지(M=4.14, SD=1.39), 고속도로/대로(M=3.69, SD=1.59), 종교관련 장소(M=3.50, SD=1.56), 쇼핑센터(M=2.71, SD=1.41)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통계 상 실제로 집(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4,575건), 노상(2,765건), 유흥접객업소(1,309

건), 상점 안 또는 건물과 같은 사업장(상점, 창고, 흥행장, 공장, 434건), 사무실(327건), 유휴지(170건), 학교(150건), 종교기관(53건), 고속도로(14건), 공지(7건) 순서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박업소 및 목욕탕(2,452건), 지하철(1,227건), 기타교통수단내(552건), 역대합실(435건), 의료기관(138건)에서도 발생 건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대생들은 성범죄가 주로 주차장이나 유흥업소, 공원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집, 노상, 숙박업소 및 목욕탕, 유흥접객업소 순으로 나타나 여대생들이 생각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밤(M=6.40, SD=.79), 저녁(M=5.64, SD=.97), 오후(M=4.32, SD=1.30), 오전(M=3.64, SD=1.64)이라고 답변하였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밤(45.1%, 7,706건), 오후(17.6%, 3,007건), 새벽(12.8%, 2,188건), 저녁(9.2%, 1,577건), 아침(8.5%, 1,446건), 오전(6.8%, 1,163건) 순서로 나타났다. 실제로 밤에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지만 오후와 새벽시간에도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40.0%, 422건), 밤(33.5%, 353건), 저녁(14.9%, 157건), 오전(5.9%, 62건), 아침(3.2%, 34건), 새벽(2.5%, 26건)으로 나타나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비해 오후, 밤, 저녁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 미디어에 묘사가 사실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묘사도 사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106)=.529, p<.01$). 그러나 성범죄나 성범죄자에 대

- 2) 사기, 횡령, 배임, 손괴, 장물을 포함하였다.
- 3) 2012년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분석에서 강간의 경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포함하고 있다.
- 4) 통화 및 유가증권·인지·우표 위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여성전문금융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의 발생건수를 포함하였음

한 뉴스미디어의 묘사(M=4.11, SD=1.27)가 인터넷이든 미디어의 묘사(M=3.50, SD=1.32)보다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성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범죄자에 대한 특성은 표 3에 비교 제시되었다. 범죄분석에 의하면 남성 범죄자의 비율은 76.68%였는데 여대생들도 남성 범죄자의 비율을 78.66%로 답하여 남성 범죄자의 비율은 실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평균 31.29(SD=7.05)세로 생각하였지만 실제 성범죄자들의 경우 41-50세가 24.1%로 가장 많았고 15.1%가 26-30세, 그리고 13.2%가 51-60세인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자들의 평균 연령대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에 처음 연관되는 나이는 평균 18.73세(SD=8.55)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의 나이는 16-18세 사이가 가장 많았다. 성범죄자들의 키는 171cm, 몸무게는 68kg 정도의 체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남성의 체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성범죄자들의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고등학교 미만, 대학 학사 졸업, 대학 중퇴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제로도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고등학교 미만, 대학 학사 졸업, 대학 중퇴 등으로 학력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범죄자들 중에서 대학원 졸업을 한 경우도 생각보다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자의 고용상태를 순서대로 시간제, 실업, 전일제, 자영업, 은퇴를 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 전일제나 시간제처럼 피고용

자의 경우 일반 회사원(3,318건)과 일용노동자(1,229건)가 가장 많은 40%에 가까웠다. 실업(4,069건)의 경우도 21.6%로 높은 편이었지만 학생(2,777건)의 경우도 14.7%를 차지하고 있어 여대생들이 인식하는 것 보다 학생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은 성범죄자들이 시간제로 일을 하거나 무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학생을 포함하여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성범죄자들의 46.4%가 하류층, 27.3%는 중류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자들은 정신건강 문제, 음주 문제, 약물남용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 문제의 가능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지만 범행 시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범죄자들은 약 0.3%, 정신박약 0.2%, 기타 정신장애가 약 0.8%로 낮은 반면에 범행 당시 주취상태였던 경우가 28.8%였으며 알코올 상용 비율도 8.3%로 나타났다. 또한 환각물질이나 마리화나와 같은 약물 남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매우 낮았다.

범죄자의 성향에 대한 인식

성범죄자의 성향에 대한 여대생들의 인식과 실제 통계와의 비교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누군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와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누군가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성격적인 요인 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제 통계상 성범죄자의 이전 전과가 없는 경우는 29.6%였지만 46.0%의 경우에는 이전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전

표 3.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특성과 실제 통계와의 비교

	여대생들의 인식(SD)	2012년 범죄분석
신체적 특성		
남성 범죄자의 비율	78.66%	76.68%
성범죄자의 평균 나이	31.29세(7.05)	소년
		16세: 26.2%
		17세: 27.4%
		18세: 26.5%
성범죄와 처음 연관되는 나이	18.73세(8.55)	성인
		41-50세: 24.1%
성범죄자의 평균 키	171.11cm(3.05)	26-30세: 15.1%
성범죄자의 평균 몸무게	67.74kg(9.48)	51-60세: 13.2%
최종학력		
고등학교 미만	21.3%	21.9%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46.3%	23.8%
대학 중퇴	9.3%	중퇴: 1.5%
		재중: 3.9%
전문대 졸업	0.9%	3.8%
대학 학사 졸업	20.4%	10.9%
석사/박사 졸업	0.0%	
전문 대학원 졸업(의대, 로스쿨)	0.9%	대학원: 2.3%
고용상태		
전일제	13.9%	피고용자: 39.7%
시간제	46.3%	
자영업	3.7%	12.5%
실업	33.3%	21.6%
학생	0.0%	14.7%
은퇴	1.9%	N/A
문제적 특성		
정신건강문제	6.36(.87)	범행 시 정신이상: 0.3%
		정신박약: 0.2%
		기타정신장애: 0.8%
음주문제	5.33(1.11)	범행 시 주취상태: 28.8%
		알코올 상용: 8.3%
약물남용문제	4.65(1.23)	환각물질: 0.07%
		마약/마리화나: 0.06%

표 4. 성범죄자들의 성향에 대한 의견¹

의견 내용	평균(SD)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	6.50(.81)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성격 또는 환경의 영향력 ²	4.94(1.24)
범행 당시 변장을 했을 가능성	4.15(1.74)
범행 당시 약물이나 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4.14(1.61)
범죄행위에 대한 후회 여부	2.44(1.24)
겉모습만 보고 범죄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	2.34(1.27)
지능	4.53(1.134)
언변능력	4.46(1.36)
매력적	2.90(1.53)
군복무 가능성	4.93(1.37)
결혼	3.71(1.27)
자녀	3.44(1.30)
애완동물	3.09(1.53)

¹ 질문은 모두 7점 척도로 측정

² 1점은 전적으로 성격적 요인, 7점은 전적으로 환경적 요인

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1범이 12.0%였고 그 다음이 9범 이상인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와 동종 전과인지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성범죄자가 동일한 성범죄를 재범하는 경우 그 기간이 3년 이상이 걸린 경우가 29.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1년 이내가 23.9%, 3년 이내가 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재범하는 경우 3년 이상이 걸린 경우가 45.4%, 1년 이내가 16.4%, 2년 이내가 12.5%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할 가능성과 겉모습만보고 그 사람이 성범죄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렀

을 때, 변장을 했을 가능성과 약물이나 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지능과 언변능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결혼 가능성과 자녀가 있을 가능성, 애완동물을 키울 가능성은 모두 낮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41.5%가 배우자가 있고 2.1%는 동거 중이며 이혼은 10.5%로 나타나 여대생들이 생각하는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성범죄자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인식

성범죄자들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일반적인

표 5. 성범죄자의 양육환경에 대한 의견

양육환경	평균(SD)	2012년 범죄백서
그림 홈 생활(고아원 등)	5.51(1.23)	무부모: 7.4%
별거(친부 또는 친모)	5.27(1.11)	
친모와 계부	5.11(1.26)	0.6%
친부와 계모	5.10(1.35)	0.9%
편부	4.93(1.38)	4.5%
편모	4.86(1.46)	12.1%
조부모	4.83(1.39)	
위탁부모	4.55(1.34)	
양부모	4.55(1.34)	0.5%
친부모(함께 거주)	3.19(1.32)	73.6%

표 6. 성범죄자들이 어린 시절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활동 및 행동들

활동	평균 (SD)	활동	평균 (SD)
긍정적 활동		일탈행위	
스카우트활동	2.51 (1.18)	약물 사용	4.50 (1.36)
교내클럽활동	2.79 (1.20)	음주	5.33 (1.34)
학생자치회	2.21 (1.13)	다른 학생 놀리기	3.87 (1.51)
우등생	2.81 (1.47)	짓궂은 장난	4.52 (1.51)
영재교육프로그램	2.76 (1.53)	무단결석	4.80 (1.40)
특수교육참여	2.63 (1.38)	집단 따돌림	5.28 (1.39)
소셜네트워크활동	3.43 (1.64)		
종교활동	2.93 (1.53)		
문자주고받기	3.56 (1.67)		
보충학습	3.11 (1.54)		
운동	3.68 (1.59)		
반사회적 활동		여가활동	
동물학대	5.55 (1.20)	롤플레이게임	4.92 (1.57)
공공기물파손	4.59 (1.46)	게임하기	5.57 (1.26)
절도	4.47 (1.36)	폭력적, 공격적인	4.92 (1.57)
방화	4.05 (1.58)	가사의 음악청취	
수간	3.94 (1.66)		
폭력조직활동	3.93 (1.44)		

인식을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성범죄자들은 유년시절에 정신건강 문제($M=6.47$, $SD=.77$)와 행동적인 문제($M=5.62$, $SD=1.39$)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다고 보았고 이들은 외톨이였으며($M=6.15$, $SD=.99$) 인기($M=2.69$, $SD=1.56$)는 없었다고 생각했다.

성범죄자의 양육환경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결과와 실제 통계와의 비교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성범죄자들이 고아원과 같은 그룹 홈 생활, 별거가정에서 양육되었거나 계부나 계모와 함께 자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친부모에 의해 양육되었을 확률을 가장 낮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혼 성범죄자들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73.6%로 가장 많았고 편모가 12.1%, 편부는 4.5%였으나 부모가 없는 경우는 7.4%였다. 성범죄자의 양육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성범죄자들이 유년 시절에 다음 26개의 활동들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측정하였다. 활동 및 행위들은 긍정적 활동, 반사회적 활동, 여가 활동, 일탈행위의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들이 유년 시절 참여했던 활동들 중 학생 자치회나 스카우트활동과 같이 긍정적인 활동들의 참여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였지만 동물학대, 음주, 게임하기와 같은 반사회적 활동 및 일탈 행동들은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공식 범죄 통계 자료에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전 연구 결과 동물학대, 공공기물 파손, 약물복용, 음주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행동들을 시작한 10대 아동 및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 더욱 폭력적이고 심

각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대생들의 인식은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Loeber, Farrington, & Petechuk, 2003).

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내용을 다양한 영역에서 파악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공식 통계와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점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범죄나 성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첫째, 여대생들은 성범죄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성범죄자의 비정상적인 특성을 가장 많이 떠올렸다. 정신이상자, 변태, 성불구자,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 음주문제, 약물남용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범행 당시 주취상태의 비율은 다른 비율보다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정신이상 판정을 받았거나 기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던 경우나 약물남용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매우 낮았다. 이처럼 성범죄의 대부분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배우자, 연인, 친척과 같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에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비환, 2012). 둘째, 특정 범죄자, 범죄 유형, 성범죄 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떠올리며 특히 성범죄의 유형별로 각기 다른 외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유영철, 강호순, 나

영이 사건, 김길태 또는 사이코패스나 히키코 모리와 같은 용어들을 떠올렸다. 또한 성범죄의 하위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외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소아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는 체구가 작고 왜소하며 동안이며 흰 피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강간범들은 근육질의 건장한 체격에 강하고 매서운 눈빛을 하고 있으며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외모적인 특성을 기술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남성, 모자, 마스크, 야구모자, 수갑을 차고 있음, 마른 체형, 날카로운 눈매 등을 떠올렸다. 셋째, 성범죄는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다. 주차장이나 공원과 같은 외지고 으스스한 장소를 떠올리거나 유흥업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집이나 숙박업소와 같이 주거 및 밀폐 공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여대생들이 성범죄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30대 초반의 남성, 보통의 체격, 정신건강, 알코올 및 약물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대부분은 시간제 직업이나 무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지능과 언변 능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결혼을 했을 가능성과 자녀가 있을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하였다. 유년 시절에도 정신건강 문제나 행동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외톨이이며 긍정적인 활동 보다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일탈적 행동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높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공식통계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은 40-51세 남성, 범행당시 정신건강, 알코올 및 약물사용 문제가 있었던 사례

는 매우 낮았으며 회사원과 같이 전일제나 시간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비율도 생각보다 높았다. 또한 생각과는 달리 결혼이나 동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보도는 사건의 발생부터 판결 및 수감 이후까지 매우 폭넓게 다루지고 있으며 용의자의 얼굴, 성장배경, 가족관계, 소득 수준, 거주지역, 취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로 제공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언론에 주목을 받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병리적인 인물들로 묘사되어 사회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는 역할들을 한다. 결국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성범죄나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성범죄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의 내용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는 성범죄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에 대한 영화나 언론 보도에 노출되면 이는 성범죄자의 특성이나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을 확인하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들을 왜곡된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자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 내용은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경찰관들도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민지, 2012; 박지선, 이연호, 2011; 박지선, 박인선, 2011).

이처럼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는 자극들은 무의식적으로 처리되고 왜곡되기도 쉽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판단은 그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범죄자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정 유형의 범죄자들은 특정한 외모를 갖고 있을 것이라

는 편향된 시각은 경찰관, 검사, 판사, 배심원들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경찰관들이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을 범죄 용의자로 오인하고 사격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재판 결과나 양형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이전부터 갖고 있던 범죄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범죄를 목격하면서 왜곡된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목격자의 잘못된 지목으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나중에 오판 판정을 받은 사례들은 총 오판 사례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이와 같이 경찰관과 같은 형사사법체계 종사자나 일반인들이 목격자로서 용의자를 지목하거나 배심원으로서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죄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을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이나 재판에서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들로 확대하여 고정관념의 내용이 형사사법절차 내에서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적 내용이 목격자의 기억회상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거나 일반인의 고정

관념을 벗어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판단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종이나 외모와 같은 정보만으로도 유죄 판결의 비율이나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weeney & Haney, 1992; Mazella & Findgold, 1994).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정책적인 절차의 도입으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특정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내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범죄와 성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이전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보완하였고 그 내용을 공식 범죄 통계와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계점도 있다. 우선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내용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성범죄자에 대한 남성들 또는 다양한 여성들의 인식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왜곡된 인식 내용이 대중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을 감안하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나이를 막론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경제적 지위나 나이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내에서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범죄통계 자료인 범죄분석은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기관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한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이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범죄사례들도 존재하고 범죄통계가 작성되는 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실제 성범죄자

5)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는 미국형사사법제도의 불의 방지 및 오판 사례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목격자 지목과 오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논의는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다 (<http://www.innocenceproject.org>).

에 대한 특징들을 정확히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황지태, 2010). 하지만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범죄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한국 범죄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대중매체가 범죄자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사회적으로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만 대중의 알 권리는 정확한 사실을 알 권리에 해당 된다(박광배, 2001). 그러므로 범죄피의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는 내세운 여론의 요구로 인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려는 태도는 현대판 주홍글씨가 아닌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강동욱, 2009). 결국 이러한 왜곡된 인식이 형사정책적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욱 (2009).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 5-28.

고비환 (2012). 선정적 범죄보도가 중형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완화책으로서의 사회적 관용의 필요성. *법학논총*, 32, 399-422.

김민지 (2012). 범죄자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정관념. *한국범죄심리연구*, 8, 53-79.

김연수 (2006). 범죄보도와 범죄인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태명 (2011).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2, 5-44.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On-Line].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793&efYd=20120916#0000>

박광배 (2001). *법심리학*. 서울: 학지사.

박보라 (2007). 언론의 강력 범죄 보도 실태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박지선, 박인선 (2011).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간 범죄자의 표상: 실제 국내 공간 범죄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 362-371.

박지선, 이연호 (2011).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5, 81-106.

박순진 (2012).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과장된 인식과 자기 편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 233-265.

박희찬, 김혜숙 (2010).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처벌 관련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 27-49.

대검찰청 (2012).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On-Line].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손현정, 이종혁 (2012). 성범죄 보도가 여성 수용자의 사회적 현실인식에 미치는 영향: 2단계 문화계발 모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언론학보*, 56, 357-474.

이승선, 김연식 (2009).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 65-94.

이수정, 김경옥 (2005).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9, 83-99.
- 양정혜 (2010).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 현실: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임. 언론과학연구, 10, 343-379.
- 황지아 (2009).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 의미구성: 중앙일보와 한겨레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 458-497.
- 황지태 (2010). 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공식통계상 범죄율 증가와 범죄피해조사상 피해율 감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Berry, D. S., & Zebrowitz-McAuthor, L. A. (1985). Some components and consequences of baby-fa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312-323.
- Blair, I. V., Judd, C. M., & Chapleau, K. M. (2004). The influence of afrocentric facial features in criminal sentencing. *Psychological Science*, 5, 674-679.
- Dixon, T. L., & Maddox, K. B. (2005). Skin tone, crime news, and social reality judgments: Priming the stereotype of dark and dangerous black criminal.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5, 1555-1570.
- Dumas, R. & Teste, B. (2006). The influence of criminal facial stereotypes on juridic judgments.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5, 237-244.
- Hans, V. P., & Dee, J. L. (1991). Media coverage of law: Its impact on juries and the public.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 136-149.
- Innocence Project (n.d.). [On-Line]. <http://www.innocenceproject.org/>
- Macrae, C. N., & Shepherd, J. W. (1989). Do criminal stereotypes mediate juridic judgemen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189-191.
- Mazzella, R., & Feingold, A. (1994).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of defendants and victims on judgements of mock juror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1315-1344.
- Loeber, R., Farrington, D. P., and Petechuk, D. (2003). Child Delinquency: Ear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Child Delinquency Bulletin Series*.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Oliver, M. B., & Fonash, D. (2002). Race and crime in the news: Whites' identification and misidentification of violent and nonviolent criminal suspects. *Media Psychology*, 4, 137-156.
- Porter, S., Brinke, L., & Gustaw, C. (2010). Dangerous decisions: the impact of first impressions of trustworthiness on the evaluation of legal evidence and defendant culpability. *Psychology, Crime and Law*, 16, 477-491.
- Sweeney, L. T., & Haney, C. (1992). The influence of race on sentencing: A meta-analytic review of experimental studie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0, 179-195.
- Valla, J. M., Ceci, S. J., & Williams, W. M. (2011). The accuracy of inferences about criminality based on facial appearance. *Journal of Social, Evolutionary, and Cultural Psychology*,

- 5, 66-91.
- Vergeer, M., Lubbers, M., & Scheepers, P. (2000). Exposure to Newspapers and Attitudes toward Ethnic Minorities: A Longitudinal Analysis.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s*, 11, 127-143.
- Yarmey, D. A. (1993). Stereotypes and recognition memory for faces and voices of good guys and bad guy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7, 419-413.
- Zebrowitz, L. A., & Collins, M. A. (1997). Accurate social perception at zero acquaintance: The affordances of a Gibsonian approac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 203-222.
- 1차원고접수 : 2013. 1. 21.
심사통과접수 : 2013. 3. 1.
최종원고접수 : 2013. 3. 23.

Perceptions of Sex Offenders among Female Undergraduates

Min C.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perceptions and images of sex offenders and compared results with National Crime Statistics in order to explore and identify the stereotype content of sex offenders. A survey was distributed to and answered by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on the following categories of questions: general perception and images, characteristics, and childhood of sex offend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erceptions of sex offenders were influenced by mass media and a number of differences were identified between the content of the perceptions and National Crime Statistics. Negative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sex offender, stereotype, crime statistics, mass media, criminal justice system